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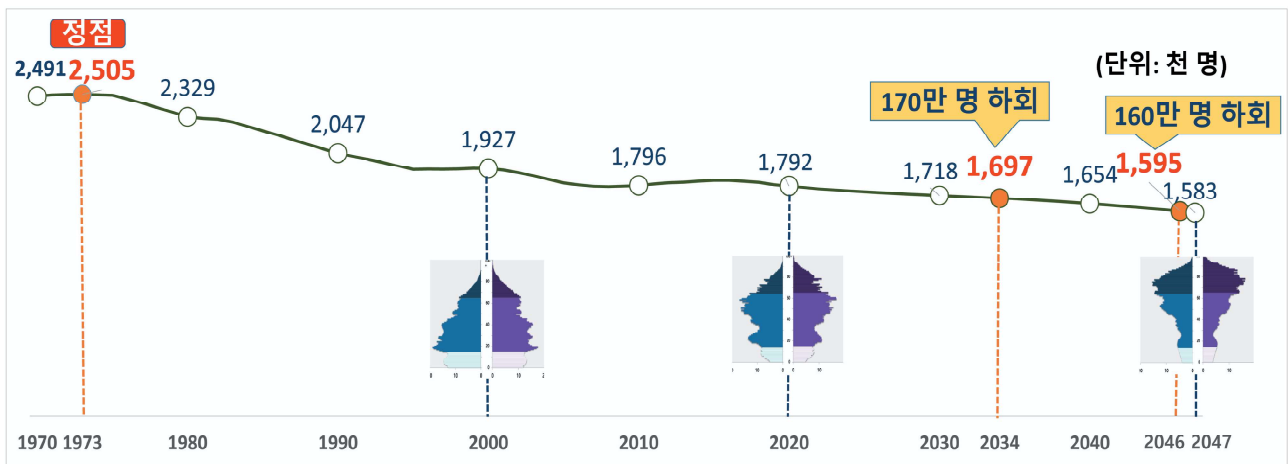
100대 통계지표로 본 전라북도 변화상[요약]

전북 인구, 2020년 1,792천 명에서 향후 2047년 1,583천 명으로 지속 감소할 전망
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총부양비가 2020년 48.0명에서 2047년 110.4명으로 급증

- 전북 인구는 1973년(2,505천 명) 정점 이후 2020년에는 1,792천 명까지 감소하였으며, 향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47년에는 1,583천 명을 기록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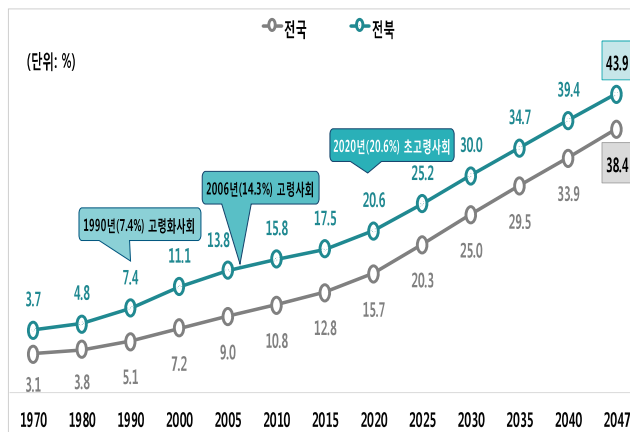
* 주요 인구변화 시기: 2034년(1,697천 명) 170만 명 하회, 2046년(1,595천 명) 160만 명 하회

〈 추계인구(1970-2047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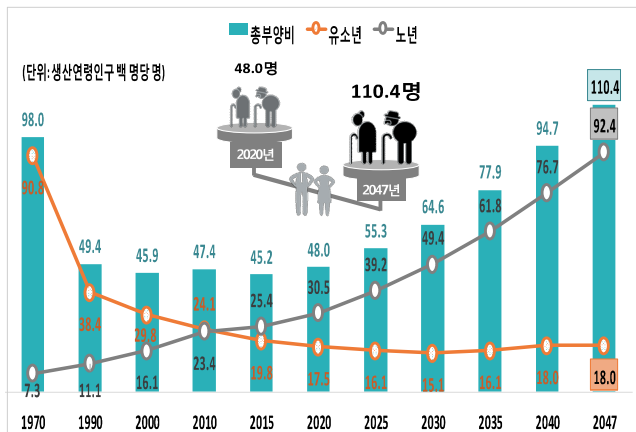


- 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3.7%에서 2020년 20.6%로 상승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, 향후 2047년에는 43.9%까지 높아질 전망
- 총부양비(생산연령인구 백 명당)는 2020년 48.0명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향후 2047년에는 110.4명에 이를 전망

〈 고령인구 비율(1970-2047)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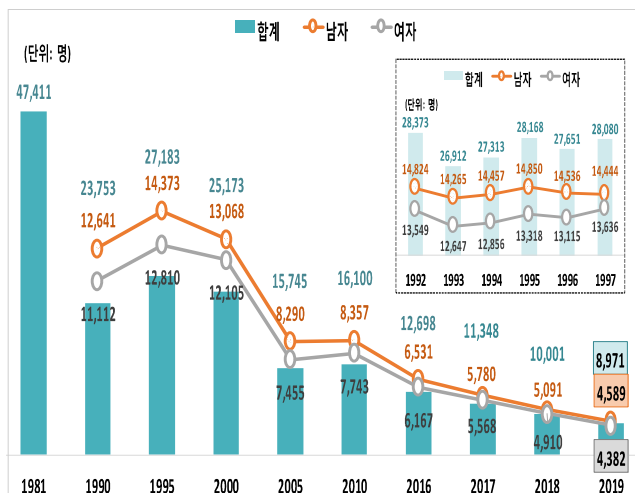
〈 부양비(1970-2047)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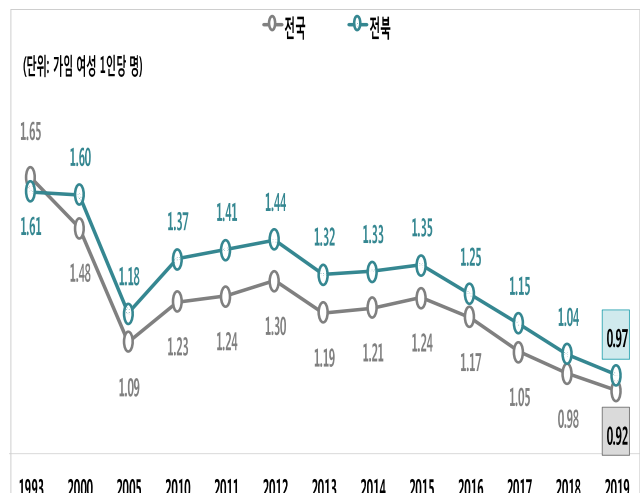
전북 합계출산율, 2019년 0.97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짐
평균 초혼연령, 남성은 2004년(30.40세), 여성은 2018년(30.04세)부터 30세를 상회

- 출생아 수는 1981년(47,411명) 정점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2019년에는 8,971명으로 1981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명 미만을 기록
- 합계출산율은 2019년 0.97명으로 1993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미만을 기록

〈 출생아 수(1981-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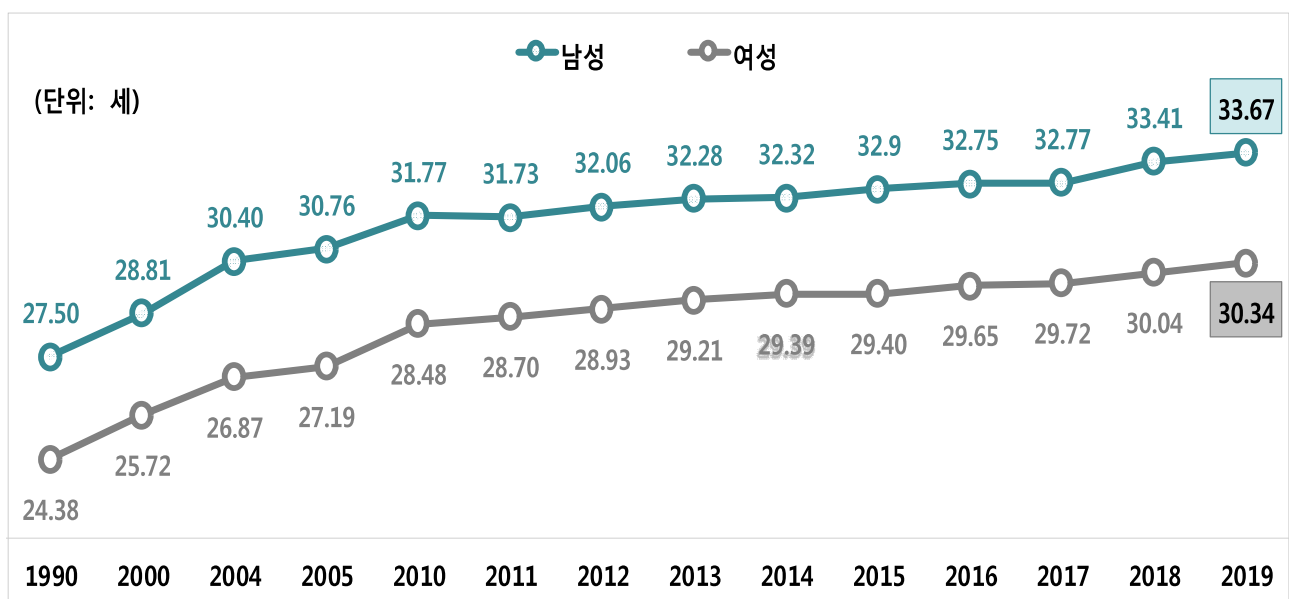


〈 합계출산율(1993-2018) 〉



- 평균 초혼연령은 2019년 남성 33.67세, 여성 30.34세로 1990년 대비 각각 6.17세, 5.96세 높아졌으며, 남·녀 간의 차이(남성-여성)는 1990년 3.12세에서 2019년 3.33세로 확대
- 남성은 2004년(30.40세), 여성은 2018년(30.04세)부터 30세를 넘어서기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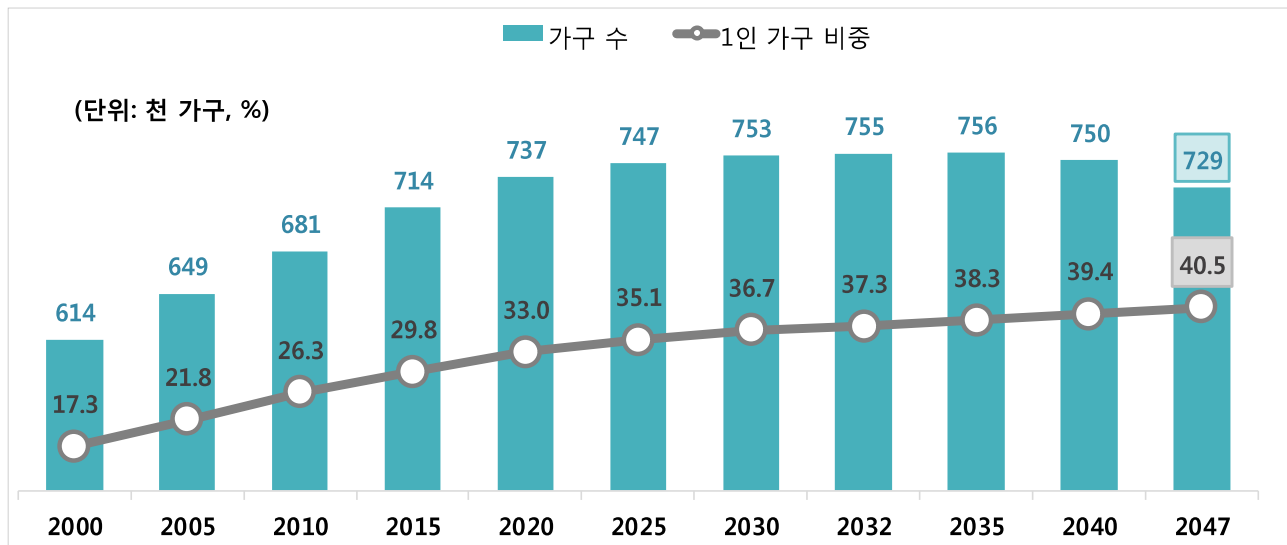
〈 초혼 연령(1990-2019) 〉



전북 1인 가구 비중, 2020년 33.0%에서 향후 2047년에는 40.5%까지 확대될 전망
다문화가구(가구원)는 2018년 12,103가구(41,235명)로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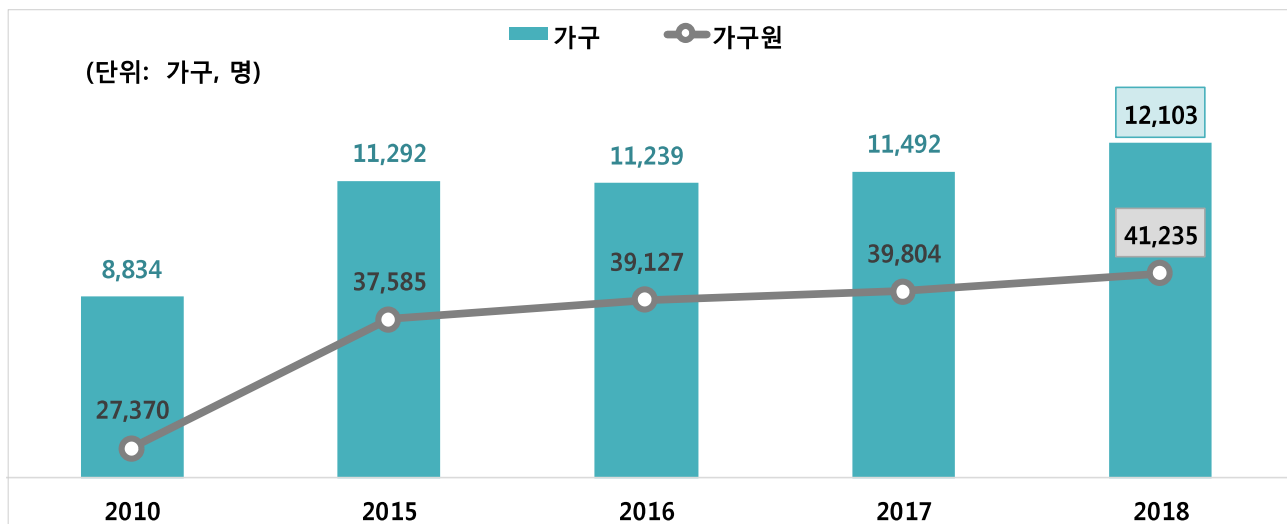
- 가구 수는 2020년 737천 가구로 2000년(614천 가구) 대비 123천 가구 증가하였으며, 2034년(756천 가구)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이후에는 점차 감소할 전망
- 1인 가구 비중(전체가구 대비)은 2020년 33.0%로 2047년에는 40.5%까지 확대될 전망

〈 가구 수 및 1인 가구 비중(2000-2047) 〉



- 다문화가구는 2018년 12,103가구로 2010년(8,834가구) 대비 3,269가구 증가하였으며, 2010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
- 다문화가구원은 2018년 41,235명으로 2010년(27,370명) 대비 13,865명 증가하였으며,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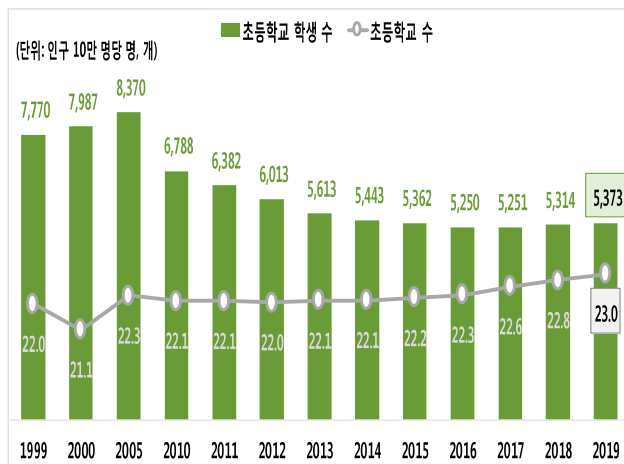
〈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수(2010-2018)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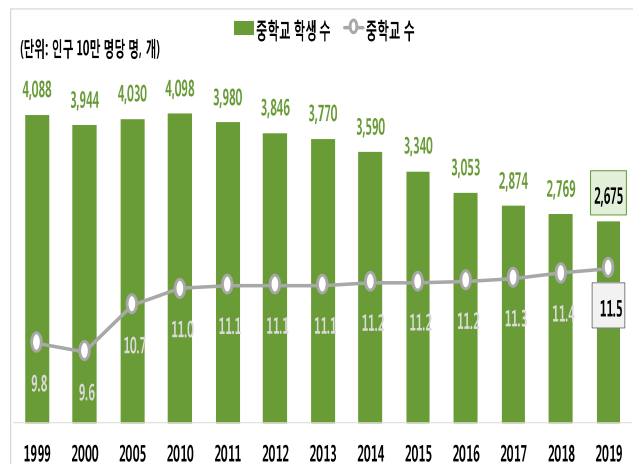
전북 초·중학생 수, 초등학생은 2016년 이후 소폭 증가세, 중학생은 2007년 이후 감소세
고용률(청년실업률)은 2019년 59.3%(9.3%)로 2000년 대비 2.8%p 상승(0.3%p 상승)

- 초등학생 수(인구 10만 명당)는 2019년 5,373명으로 1999년(7,770명)에 비해 2,397명 감소하였으며, 2016년(5,250명)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
- 중학생 수(인구 10만 명당)는 2019년 2,675명으로 1999년(4,088명)에 비해 1,414명 감소하였으며, 2007년(4,235명)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

〈 초등학교 학생 수 및 학교 수(1999-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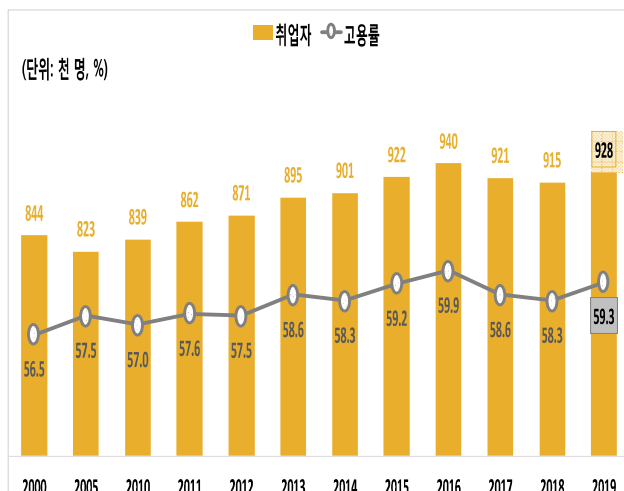


〈 중학교 학생 수 및 학교 수(1999-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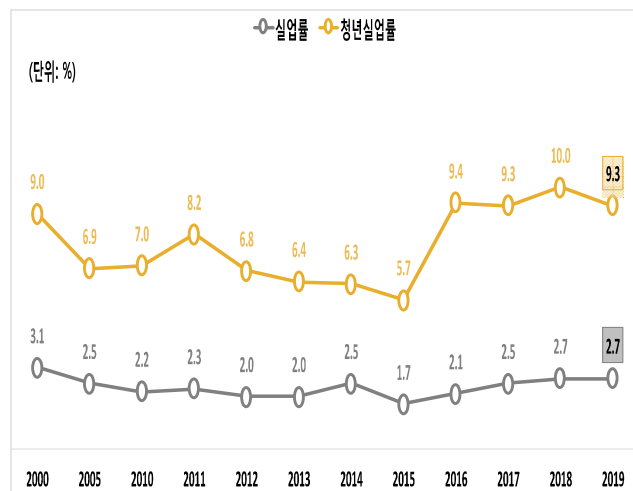


- 취업자 수는 2019년 928천 명으로 2000년(844천 명)에 비해 84천 명 증가하였으며, 고용률은 59.3%로 2000년(56.5%) 대비 2.8%p 상승
- 실업률은 2019년 2.7%로 2000년(3.1%)에 비해 0.4%p 하락하였으며, 15~29세의 청년실업률은 9.3%로 2000년(9.0%) 대비 0.3%p 상승

〈 취업자 및 고용률(2000-2019)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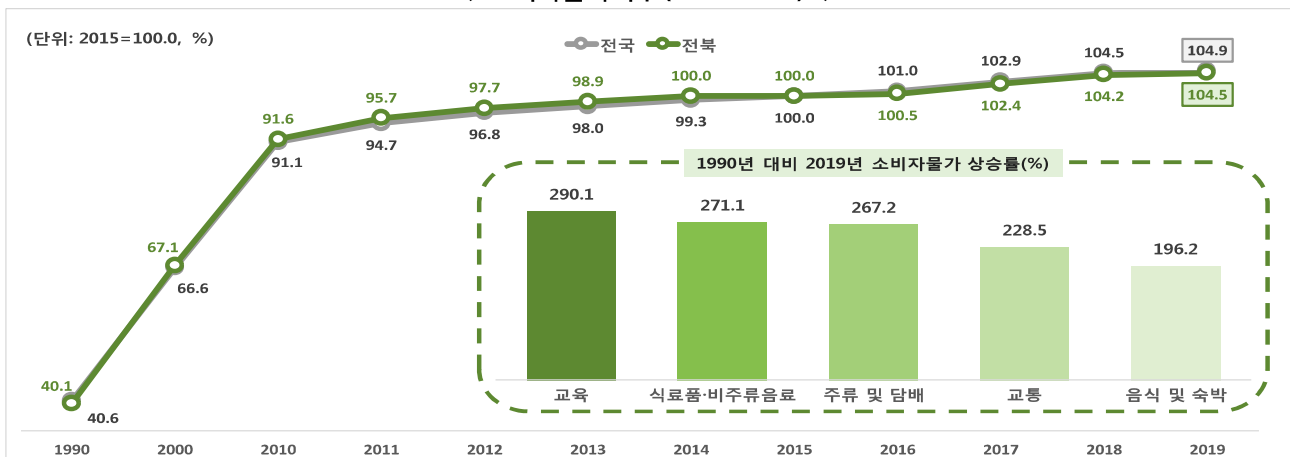
〈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(2000-2019) 〉



전북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(1990년 대비), 교육비가 290.1%로 가장 많이 상승
주요 품목 중 짜장면 가격은 1990년 약 1,200원에서 2019년 5,500원으로 상승

- 소비자물가지수는 2019년 104.5로 1990년(40.1) 대비 160.8% 상승하였으며, 전년대비로는 0.3% 상승
- 1990년 대비 크게 상승한 부문은 **교육비**(290.1%), 식료품·비주류음료(271.1%), 주류 및 담배(267.2%), 교통(228.5%), 음식 및 숙박(196.2%) 등의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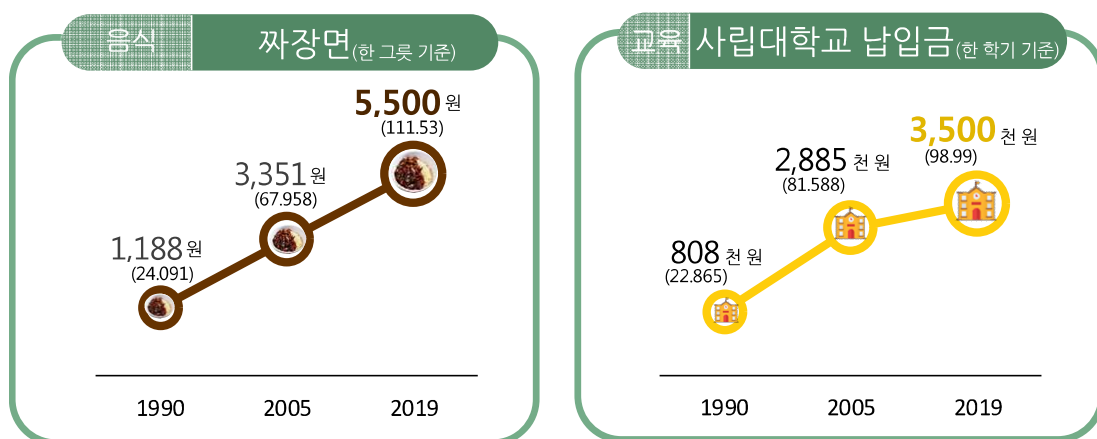
〈 소비자물가지수(1990-2019) 〉



- 주요 품목별 지수를 살펴보면, **짜장면**은 1990년 24.091에서 2019년 111.53으로 **363.0%** 상승하였으며, **사립대학교 납입금**은 22.865(1990년)에서 98.99(2019년)로 **332.9%** 상승
- 이를 가격으로 환산*해 보면, **짜장면**은 1990년 1,188원에서 2019년 5,500원으로 상승하였고, **사립대학교 납입금**은 808천 원에서 3,500천 원으로 상승한 셈임

* 해당 품목의 2019년 가격을 가정한 후 해당연도와 2019년 품목지수의 비를 곱하여 산출

〈 전북 주요 품목의 소비자물가 변화(1990, 2005, 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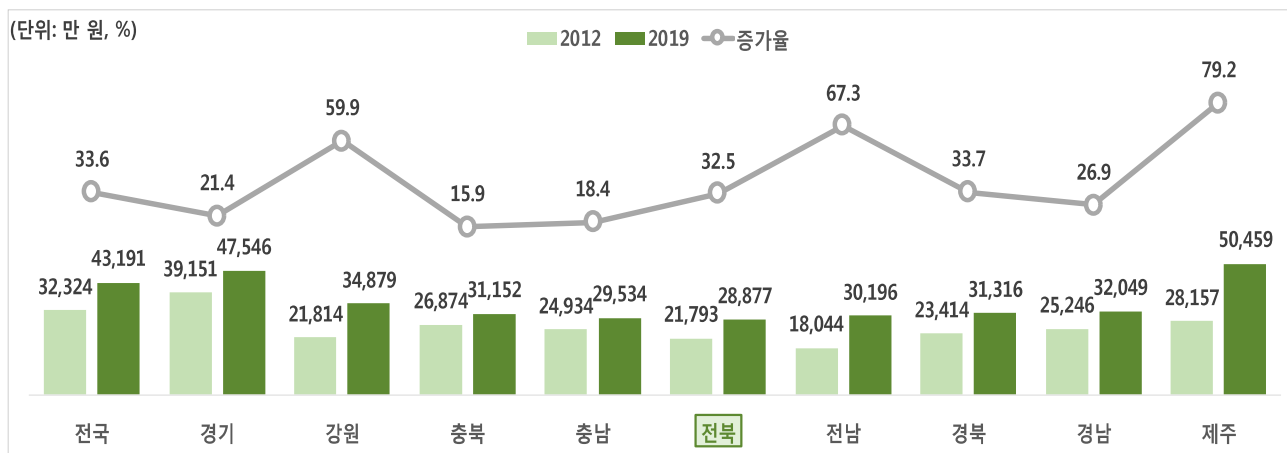


* ()내의 수치는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 지수임

전북 가구 자산, 2019년 28,877만 원으로 9개 도(道)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
의료기관 수(인구 10만 명당)는 2017년 130개로 전국(128개)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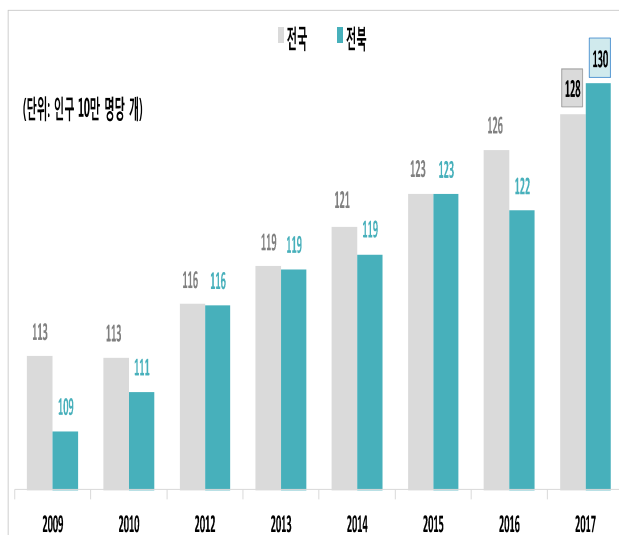
- **가구 자산은 2019년 28,877만 원으로 2012년(21,793만원)에 비해 32.5% 증가**
하였으나, 9개 도(道) 중에서는 가장 적음
- **2012년 대비 증가율은 9개 도(道) 중 충북(15.9%), 충남(18.4%), 경기(21.4%),**
경남(26.9%)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게 나타남

〈 전국 및 9개 도별 가구 자산(2012, 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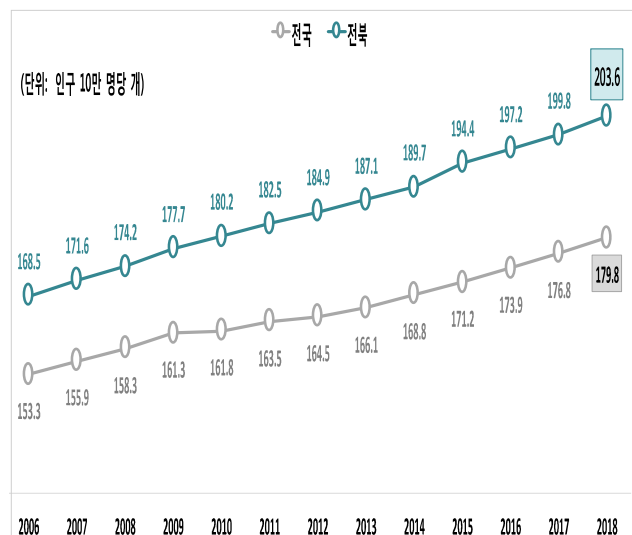


- **의료기관 수(인구 10만 명당)는 2017년 130개로 2009년(109개)에 비해 19.6%**
증가하였으며, 전국(128개)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
- **요양기관 수(인구 10만 명당)는 2018년 203.6개로 2006년(168.5개)에 비해**
20.8% 증가하였으며, 전국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상승세를 지속

〈 의료기관 수(2009-2017)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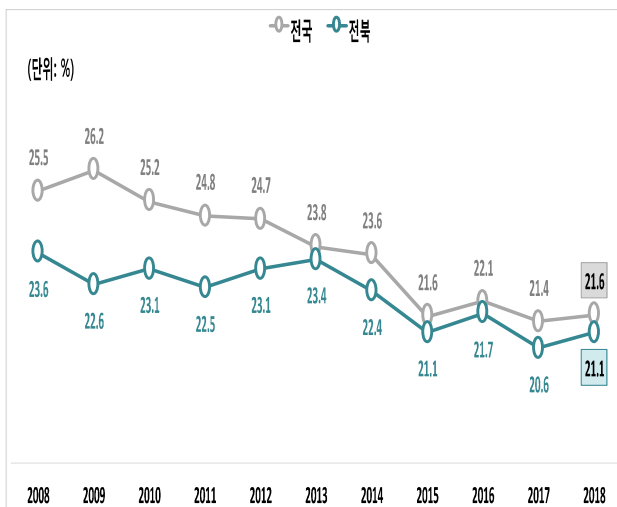
〈 요양기관 수(2006-2018)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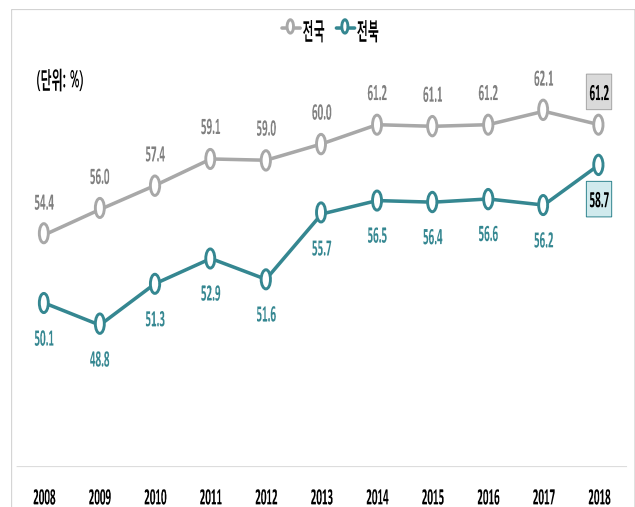
전북 2018년 현재 흡연율은 21.1%, 음주율은 58.7%로 전국 보다 낮은 수준
삶의 만족도(「만족」 응답 비율), 2019년 남성 37.4%, 여성 34.5%로 2009년 대비 모두 상승

- 현재 흡연율은 2018년 21.1%로 2008년(23.6%)에 비해 2.5%p 낮아졌으며,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
- 음주율은 2018년 58.7%로 2008년(50.1%)에 비해 8.6%p 높아졌으나,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

〈 현재 흡연율(2008-2018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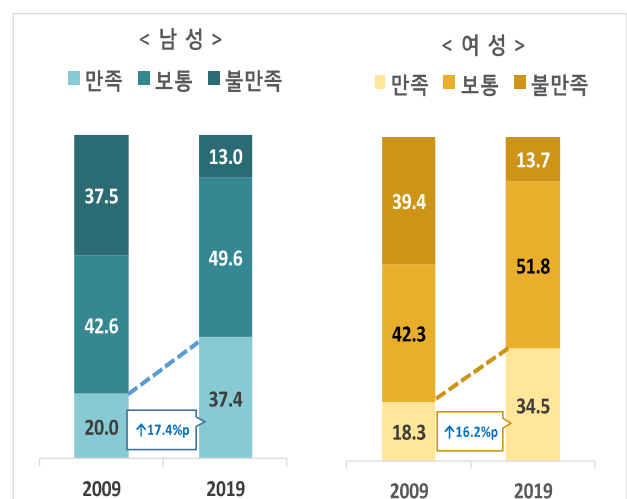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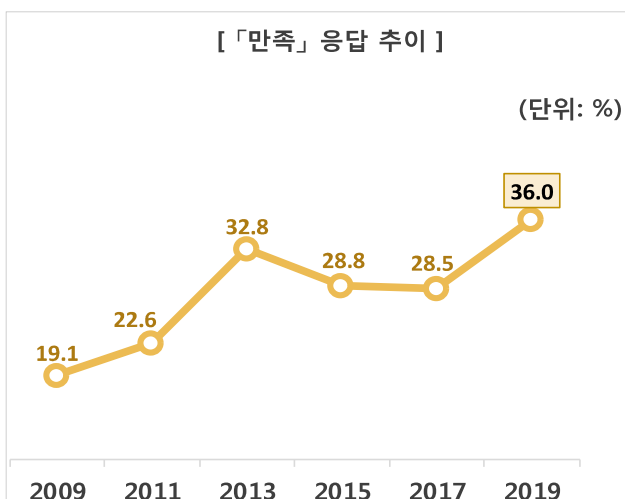


〈 음주율(2008-2018) 〉



-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, 2019년 「만족」 응답 비율은 36.0%로 2009년(19.1%)에 비해 16.9%p 상승
- 남·녀의 「만족」 응답 비율을 비교하면, 2019년 남성 37.4%, 여성 34.5%로 2009년 대비 남성은 17.4%p, 여성은 16.2%p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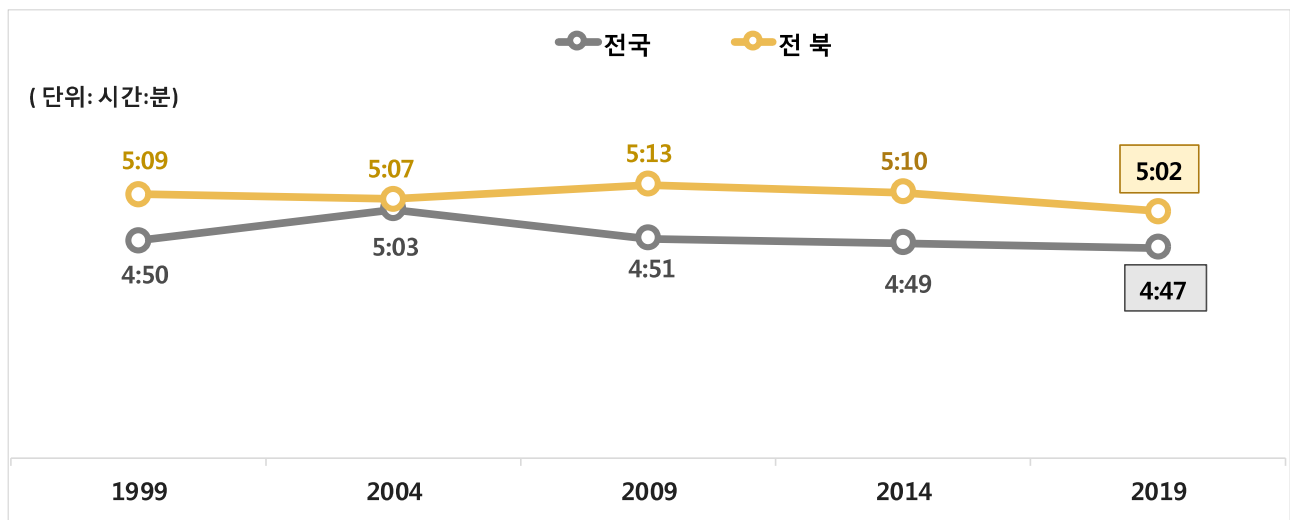
〈 삶의 만족도(2009-2019) 〉



전북 평균 여가 시간, 2019년 5시간 2분으로 10년 전(1999년)에 비해 7분 감소
사망원인별 사망률은 2018년 악성신생물(암), 심장 질환, 뇌혈관 질환 등의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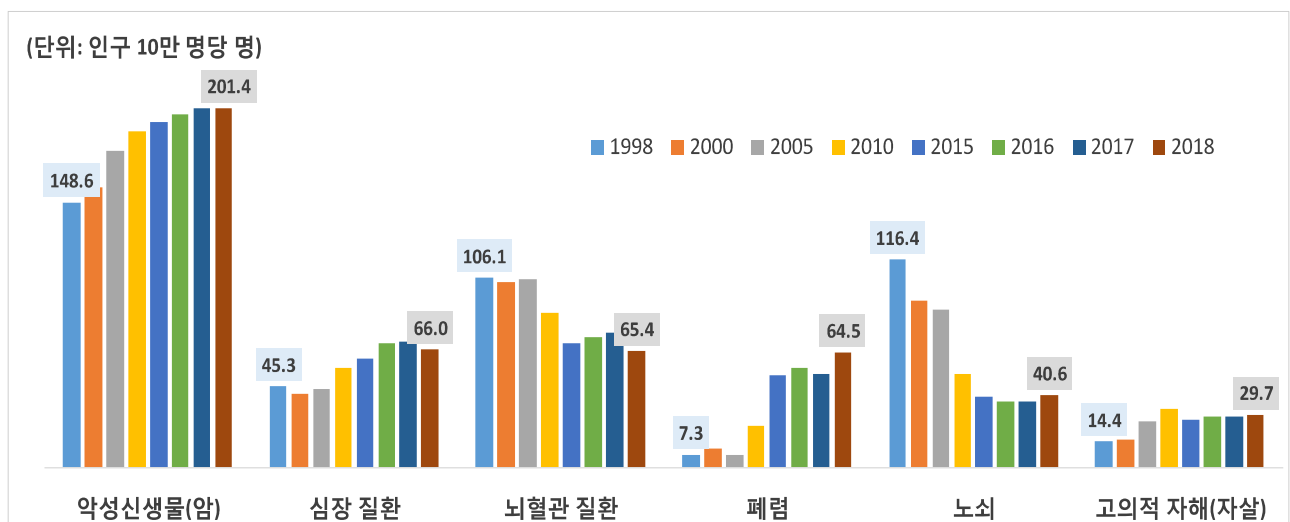
- 요일 평균 여가 시간은 2019년 5시간 2분으로 1999년(5시간 9분)에 비해 7분 감소하였으며, 2009년(5시간 13분) 이후 감소하는 추세
- 1999년부터 전국 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

〈 여가 시간(1999-2019) 〉



- 2018년 사망원인별 사망률(인구 10만 명당)은 악성신생물(암)(201.4명), 심장 질환(66.0명), 뇌혈관 질환(65.4명) 등의 순임
- 10년 전(1998년)에는 악성신생물(암)(148.6명), 노쇠(116.4명), 뇌혈관 질환(106.1명)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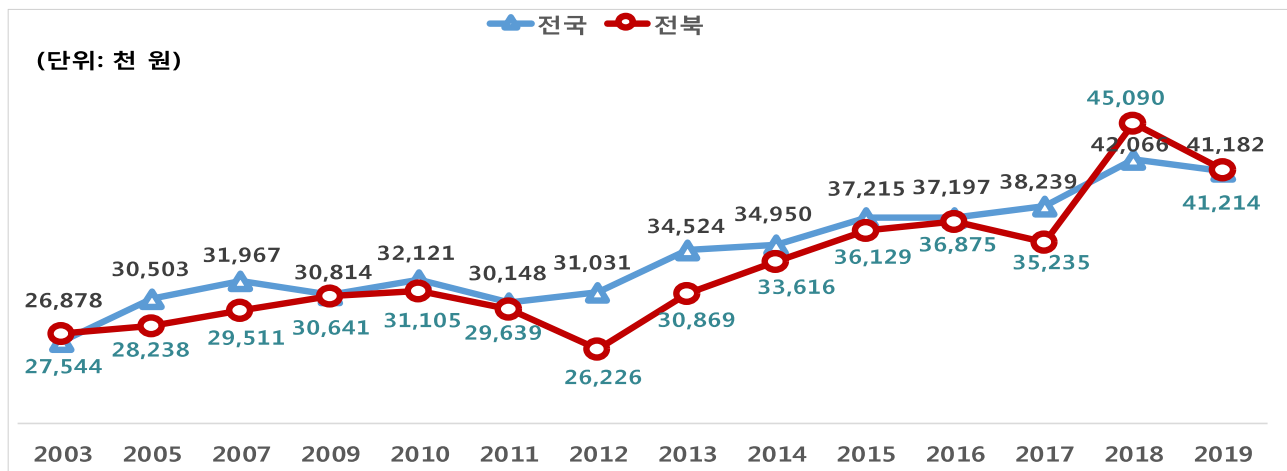
〈 사망원인별 사망률(1998-2018) 〉



전북 농가 소득, 2019년 41,214천 원으로 전국(41,182천 원) 보다 다소 높은 수준
농가(어가) 수는 2019년 95천 가구(2,951가구)로 1970년 대비 66.3%(31.0% 감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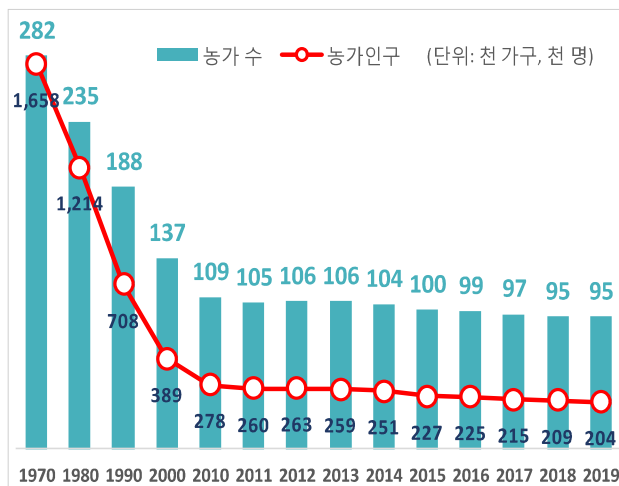
- 농가 소득은 2019년 41,214천 원으로 2003년(27,544천 원)에 비해 49.6% 증가 하였으며, 전국(41,182천 원)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임
- 전국 9개 도(道) 중 경기(50,576천 원), 제주(48,963천 원), 충남(44,019천 원)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음

〈 농가 소득(2003-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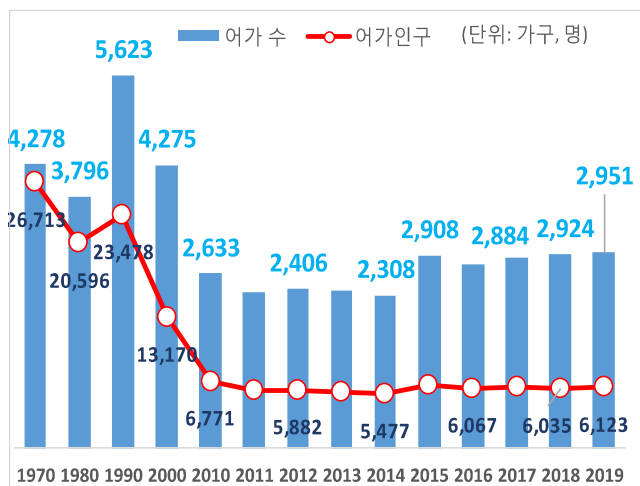


- 농가(농가인구) 수는 2019년 95천 가구(204천 명)로 1970년 282천 가구(1,658천 명) 대비 66.3%(87.7%) 감소하였으며,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
- 어가(어가인구) 수는 2019년 2,951가구(6,123명)로 1970년 4,278가구(26,713명) 대비 31.0%(77.1%) 감소하였으나, 전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

〈 농가 및 농가인구 수(1970-2019)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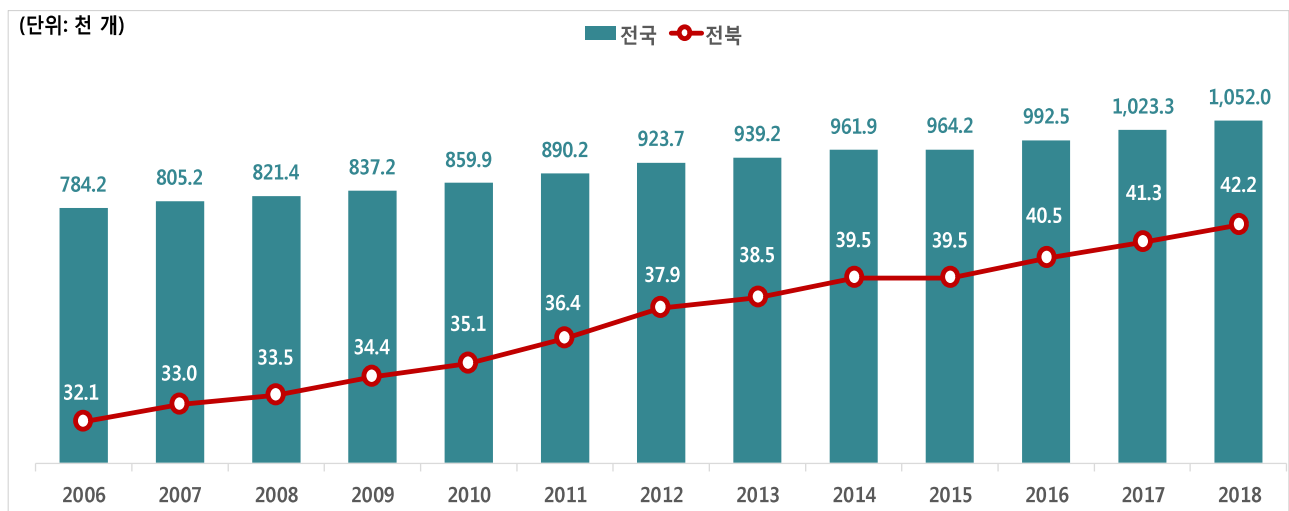
〈 어가 및 어가인구 수(1970-2019) 〉



**전북 서비스업 사업체 수, 2018년 42.2천 개로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
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0.5대로 2명당 1대 꼴로 등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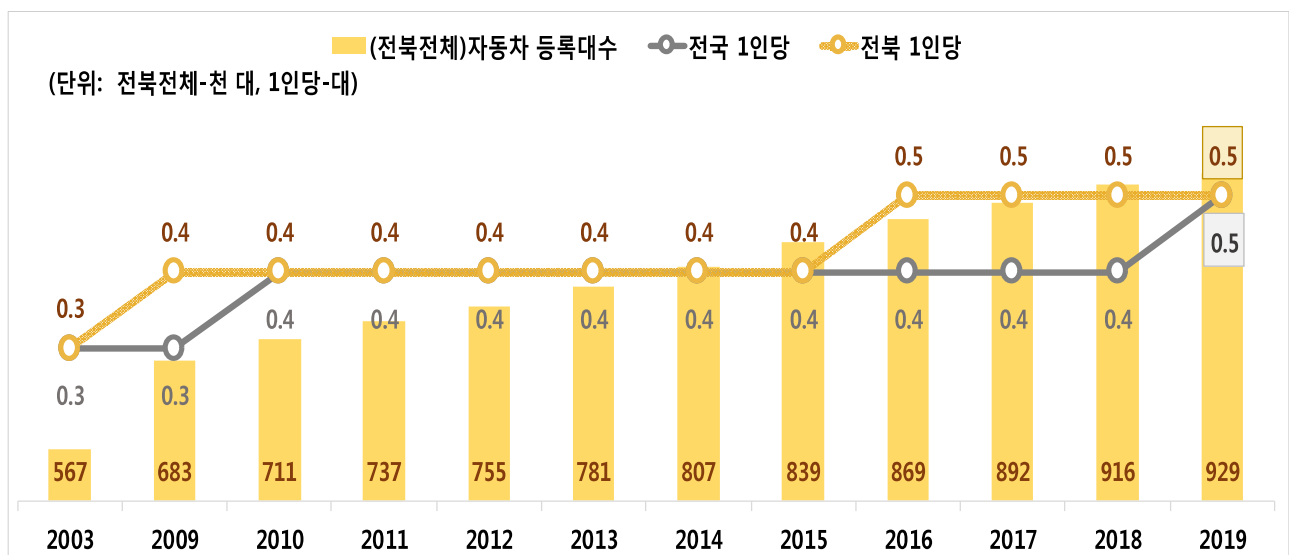
-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018년 42.2천 개로 2006년(32.1천 개)에 비해 31.3% 증가하였으며, 전국(1,052.0천 개) 대비 비중은 4.0% 수준을 보임
- 2006년(32.1천 개)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(40.5천 개)부터는 40천 개를 상회

〈 서비스업 사업체 수(2006-2018) 〉



-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0.5대로 2003년(0.3대)에 비해 0.2대 증가하였으며, 전국(0.5대)과 동일한 수준
-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929천 대로 2003년(567천 대)에 비해 362천 대 증가

〈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및 (전북전체)자동차 등록대수(2003-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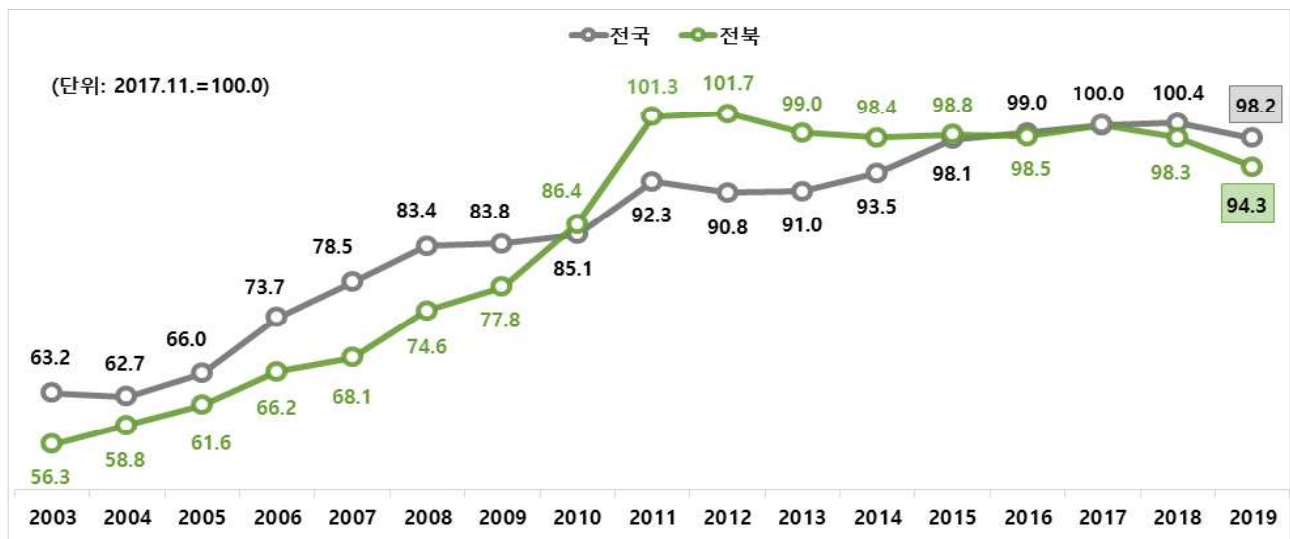


**전북 아파트 매매가격지수, 2019년 94.3으로 2003년(56.3) 대비 67.6% 상승
1인당 개인소득은 2018년 18,141천 원으로 2000년(7,684천 원) 대비 136.1% 증가**

□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9년 94.3으로 2003년(56.3)에 비해 67.6% 상승하였으나,
2017년(100.0) 이후 하락하는 추세

○ 2010~2015년을 제외하고는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

〈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(2003-2019) 〉



□ 1인당 개인소득은 2018년 18,141천 원으로 2000년(7,684천 원)에 비해 136.1% 증가하였으나, 9개 도(道) 중 가장 낮음

○ 2000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

〈 1인당 개인소득 (2000-2018) 〉

